

“研究開發課題 엄선 집중개발토록”

全大總統, 올해 첫 技術振興擴大會議서 강조

당면과제 해결위해 產·學·研 긴밀 협력해야



◇全斗煥대통령이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기술개발有功者 16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고 있다.

全斗煥대통령은 9월 5일 상오 성와대 영빈관에서 금년도 제1회 技術振興擴大會議를 주재하고 李台燮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2천년대 과학기술발전장기실큰계획과 우수기술개발 성공사례를 보고 받았다.

全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발전이 중요하다고해서 모든 분야를 다같이 발전, 개발해 나갈 수 없는 만큼 우선 순위에 따라 개발과제를 엄선해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양성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효율적인 과학기술인력교육 및 훈련제도를 마련하고 양성된 인력을 적

재적소에 배치해 활용하는 한편 연구소나 기업에서 각기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대기업의 첨단기술개발 못지않게 중소기업들이 기존기술을 더욱 숙련시키고 그들에게 알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부품과 소재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자체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보고된 全電子교환기등 우수기술개발 사례는 기업과 학계, 연구소 등 產·學·研 협동의 좋은 본보기라고 말하고 『과학기술분야의 당면과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產·學·研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有功者 16명 표창

全대통령은 이날 李會林 東洋化學회장에게 金塔산업훈장 을 수여하는 등 기술개발유공자 16명을 포상한 뒤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이날 훈·포상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塔산업훈장=李會林(東洋化學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 徐廷旭(전기통신공사 TDX 사업단장) ▲銅塔산업훈장 = 姜鍾大(제일중기 대표) · 丁海平(한국종합기계공장장) ▲국민훈장 목련장=李載淳(전대교수) ▲녹조군정훈장=洪殷熹(농진청과장) ▲鐵塔산업훈장=朴基漸(株)又榮 대표) · 姜榮國(大宇重工業연구소장) · 吳憲承(럭키중앙연구소 부소장) · 尹昶懿(廣林기계) ▲국민훈장 石榴章=柳完英(전자통신연구소부장) ▲錫塔산업훈장=曹圭錫(承林物產 대표) · 李台植(三桺사진기계 대표) ▲산업포장 = 鄭建和(東洋化工상무) · 趙俊熙(韓管產機 대표) · 李珉和(메디슨 대표)

한편 科技處는 이날 보고에서 내년부터 오는 2천 1년까지 모두 54조 5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2백 56MD램을 개발하는 등 2백 29개의 첨단기술 과제를

2千년대 10위권 技術先進國 목표 科學技術發展 장기실천 계획 樹立

수행하는 한편 遺傳子 銀行과 기초과학연구센터 등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科技處는 이를 통해 오는 2천년 1가구 1단말기의 생활정보 당시대를 실천하고 기술·두뇌집

약산업의 비중을 현재의 25%에서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부품공급기지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李台燮 과기처장관은 이날 「2천

년대 과학기술발전장기실천계획」 보고를 통해 2천년대 세계 10위권의 기술선진국 실현을 과학기술 개발의 기본목표로 잡고, △정보 산업기술 △재료관련기술 △산업 요소기술 △에너지 및 자원기술

△환경보전기술 △해양 및 항공 기술 △기초연구 등 7대 계열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우리 여건에 맞고 송산이 있는 特化부문을 선정, 우선적으로 중점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처는 이같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천 1년 까지 과학기술투자를 GNP의 3.1% 이상으로 확대하며 이 기간 중 연구개발비 54조 5천억원을 투입하되 정부의 분담비율을 현 32%에서 40% 수준으로 높이고 인구 만명당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확보키로 했다.

科學技術協力團 유럽지역派遣

科技處, 尖端技術부문 전문가로 구성

科學技術處는 지난 4월 대통령 歐洲지역 巡訪時 과학기술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합의된 바 있는 유럽제국과의 국제공동연구등 科學技術分野 協力を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베카트로닉스, 신소재 및 정밀화학 등 尖端技術部門 專門가들로 구성된 科學技術協力團을 독일, 불란서, 영국, 이태리 및 벨기에 등에 파견할 예정이다.

동協力團은 화학연구소 蔡永福소장을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유전공학센터, 한국전력, 한일합섬 등의 책임급 연구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10. 24~11. 9간 방문대상 국의 科學技術擔當 정부기관과 관계연구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동 협력단 참가연구원들은 담당분야별로 독일 막스플랑크재료연구소 및 프라운호퍼 자동화연구소, 불란서 국립화학연구소 및 국립 정보·자동화 연구소, 영국의 국립물리학연구소 및 임페리얼대학 등을 방문하여 공통 관심 협력과제 내용 및 협력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방문하는 연구소들의 최근 연구개발 현황을 물려볼 예정이다.

금년 4/4분기와 내년 1/4분기에 걸쳐 유럽제국과는 韓·佛 과학기술장관회의, 韓·EC 고위협의회, 韓·獨 과학기술 실무회의, 韓·英 과학기술 혼성(위) 등이 개최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유럽제국의 연구원들과 우리나라의 연구원들이 개발협력과제를 직접

협의하게 됨으로써 科學技術協力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나아가 내실있는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所長에 安宇熙박사

韓國電氣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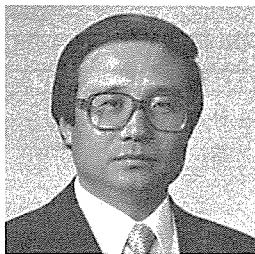
(安宇熙所長)

韓國電氣研究所는 9월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安宇熙박사(47세·陸士교수)를 새회장에 선임했다.

新任 安소장은 陸士와 서울工大를 거쳐 美國 미시건 주립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 지난 70년 12월부터 陸士교수로 재직해 왔다.

“使命 갖고 科學技術개발에 힘써 달라”당부

李台燮 장관, 出捐機關等 初度巡視



李台燮
長官

李台燮 과학기술처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8월 30일 과기처 본처 각 실국 및 중앙기상대등 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데 이어 9월 2일과 9~10일, 17일, 4일간 서울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및 충남 대덕연구단지내에 소재한 에너지연구소, 화학연구소, 동력자원연구소, 전자통신연구소등 6개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대학 및 과학재단, 그리고 경남 창원에 있는 기계연구소, 전기연구소 등을 둘러보았다.

李장관은 이번 순시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연구분위기도 성숙되어가고 있으므로 연구원 여러분도 어려운 여건하에 고생이 많겠지만 궁지와 사명감을 발휘해 과학기술개발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이번에 과기처에서 설정한 2천년대 과학기술발전장기실천계획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연구소장들에게 부탁했다.

李장관은 또 종합과학관 건설

현장에도 들려 『역사적으로 길이 남길 유적을 건설하는 궁지와 사명의식을 갖고 완벽한 시공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과학관은 전물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전시할 내용물이 더욱 중요하니 전시물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선진국보다 앞선 과학전당이 되도록 힘쓸 것』을 지시했다.

李台燮 과학기술처장관은 또 9월 30일에는 韓國機械研究所 附設 기술지원센터 및 韓國動力資源研究所 서울분소와 경기도 안산시 소재 海洋研究所를 방문하

고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는 연구원을 격려했다.

이날 金永澤 기업기술지원 센터장은 보고를 통해 86년 8월 현재 소재 및 부품생산업체등 유망중소기업 353개 업체를 발굴, 기계연구소, 에너지연구소, 동력자원연구소 연구원을 투입, 기술지도와 고가시험장비 시설을 개방하여 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했으며 오는 88년 5월까지 500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許亨澤 해양연구소장도 보고를 통해 10여종의 고급어종의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어민들에게 보급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힘쓰겠으며 망간등 심해저자원 탐사와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大德연구단지 現 2배규모로 확장

90년말까지 2단계造成事業 완료

忠南 大德연구단지의 2단계 조성사업이 내년 3월 착수됨에 따라 오는 90년말까지 그 규모가 현재의 배로 늘어난다.

大德연구단지 2단계 사업규모는 연구단지 1백 1만 4천평, 주택단지 34만 5천평등 모두 1백 35만 9천평으로 사업시행자인 韓國土地開發公社는 총 1천 5백 억원의 사업자금을 들여 오는 90년말까지 단지조성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土開公은 오는 10월말까지 해당지역에 대한 측량등 기초공사를 끝내고 11월말까지 설계를 작

성해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내년 3월께부터 토지보상과 함께 공사에 착수할 작정이다.

이에 따라 과기처는 지난달부터 입주할 연구소 선정작업에 착수, 14개소를 확정지은데 이어 새로 신청서를 제출한 10여개의 연구기관에 대해 적부여부를 심의 중이다.

그런데 大德연구단지 2단계 사업지구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소가 많이 입주해 있는 1단계 사업지구와는 달리 주로 민간 연구기관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5개都市 高度技術공업도시로 開發

88년까지 開發마스터플랜 작성

정부는 청주·전주·이리·광주·순천 등 5개市를 고도기술공업도시로 개발하고 大德 인접지역에 기술집약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商工部가 마련한 「고도기술공업도시 개발추진방안」에 따르면 공업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나 학술 및 도시기능이 집적돼 있고 수송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고도기술공업도시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한 이들지역을 집중개발키로 하여 「고도기술공업도시개발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올해안으로 관계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고도기술공업도시개발연구단을 발족시켜 고도기술공업도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대상지역 및 유망업종을 조사, 선정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1단계로 오는 88년까지 고도기술공업도시 개발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2단계로 ▲첨단기술산업의 유치·육성 ▲정보센터의 설립 ▲연구소의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 기능의 활성화 ▲의료·교통·통신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3단계로 ▲첨단산업의 집적을 통한 신규기업 및 산업의 위치 ▲연구개발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업의 기술 고도화 ▲고도기술공업도시의 첨단산업거점 역할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산업기능만 조

성돼 있는 공업도시에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 촉진해 나가돼 이를 產·學·官간의 연계화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밖에 상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0개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고도기술공업도시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내년초 일본·프랑스·영국·프랑스 등 4개국에 조사단도 파견할 계획이다.

2千년초 原電 완전自立

電氣에너지 準國產化시대 열려

우리나라의 原子力發電所 전설기술자립도가 오는 96년까지 95% 이상을 달성하고 2천년초에는 완전자립을 이룩함으로써 電氣에너지의 準國產化시대가 열린다.

韓國原子力產業會議(회장 朴正基)에 따르면 韓電은 현재 입찰 평가작업이 진행중인 原電 11, 12호기의 건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내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하고 외국업체는 국내업체의 하

청자로 참여함으로써 국내기술총정율은 95% 이상 그리고 국산화율은 평균 75% 달성을 목표로 각 업체별로 국산화를 분담하여 추진한다는 것.

韓電의 전반적인 사업관리하에 추진될 이 原電 11, 12호기의 건설사업에는 韓國重工業이 기기의 설계와 제작 및 설치공사를, 그리고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원자로 제통의 설계와 경수로 핵연료의 설계중수로 핵연료의 설계 및 제조를 담당하고 韓國電力技術주식회사와 韓國核燃料會社는 설계엔지니어링과 경수로 핵연료의 제조를 각각 분담하게 된다.

그런데 韩電은 오는 95년 3월과 96년 3월에 原電 11, 12호기가 완성되면 그 이후의 후속운전은 11, 12호기를標準화 모델로 하여 原電技術의 완전자립을 이룩할 계획이다.

기술이 곧 에너지를 창출하는 原電의 기술자립이 이루어지면 原子力發電은 우리나라 準國산에너지로 전력의 장기적인 안정공급은 물론 외화절약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原電 11, 12호기의 부분별 기술자립목표는 별표와 같다.

〈별표〉 原電기술자립목표

(단위 : %)

구 분	원전 9, 10 국산화율	원전 11, 12 국산화목표	원전 11, 12 기술자립목표
기자재 제작	40	72	95이상
핵증기공급계통설계	-	50	95이상
핵연료설계(초기노심)	-	77	100
핵연료 제조	-	100	100
설계 엔지니어링	46	79	95이상

“科總 육성에 최대한 支援다짐”

李과기처장관, 科總 초도순시차 방문

元老과학기술인과 오찬 간담회도 가져



◇李台燮 장관은 취임후 처음으로 科總을 禮訪, 趙完圭 회장등 科總회장단과 자리를 함께했다.

李台燮 과학기술처장관은 9월 13일 취임후 처음으로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찾아 趙完圭 科總회장과 金東一 상임고문 등 과학기술계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투자 등 당면과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후 오찬을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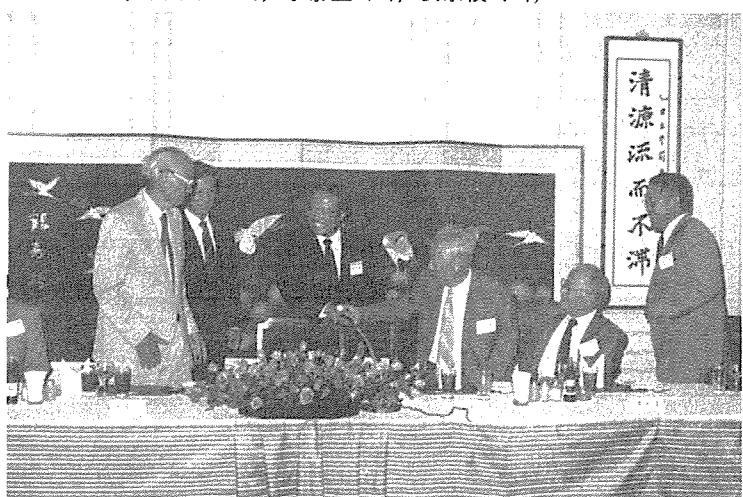
이날 李장관은 鄭助英 科總사무총장으로부터 科總사업 전반에 걸쳐 현황을 보고 받은 후 科總이 과학기술인의 총본산으로서 그동안 경제발전의 배후에서 큰 역할을 해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在任중 科總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뜻을 밝혔다.

李장관은 이어 원로과학기술인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科總

기술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줄 것 △科總 중심의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방안 마련 △광주, 부산 등지의 과학기술단지건설 △원자력방사선 폐기물질처리공사의 설립△학술원 차원의 Academy of Science & Technology 설립요청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앞으로 과학기술체계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특히 科總의 학회 학술활동사업과 과학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원로과학기술자문단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에도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李장관이 元老과학기술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元老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좌로부터 崔奎南박사, 鄭助英사무총장, 李台燮 장관, 安東赫박사, 李泰圭박사, 安京模박사)



開途國에 기술이전 촉구

權차관, IAEA총회참석

權原基 과학기술처차관은 9월 29일부터 5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0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10월 5일 귀국했다.



權原基
車
관

세계 112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權차관은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정책소개 및 원자력기술 선진국들의 핵심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기술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제반활동 보고와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이사국선출, 기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 및 군사 목적 전용제제를 위한 방안이 협의됐는데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原電사고 시 사고내용의 조기통보와 상호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을 비롯하여 原子力 안전기술 협력증진 등 다각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權차관은 총회 참석후 귀로에 스웨덴을 방문, 원자력을 포함한 과학기술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프랑스 및 구주지역과의 최근 과학기술 정보 교류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소피아 안티폴리스 연구단지에 설치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분소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에너지資源 기술협력 모색

韓·佛 에너지절약세미나

에너지資源 기술협력을 위한 韓·佛產業 및 전물에너지절약세미나가 9월 11~12일 2일간 호텔신라에서 열렸다.

韓國動力資源研究所와 프랑스 에너지관리공사(AFME)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에너지관계전문가 3백여명이 참석하여 에너지절약 新에너지 및 代替에너지기술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톡톡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양측 대표들은 태양에너지, 소수력발전,

지열에너지, 폐자원활용등의 공동 연구개발에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獨逸교수 招請세미나

인하大 산업과학기술研

인하대학교 산업과학 기술연구소(소장 강인찬)는 독일 아헨대학의 Klaus W. Lange 교수와 Winfried Dahl 교수를 초청, 「제강 열역학 및 반응속도론」과 「강재 구조물의 파괴역학」에 관한 세미나를 10월 10일 인하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개최했다.

大韓金屬學會와 大韓機械學會 협찬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Lange 교수는 「Thermodynamics and Kinetics of Recent Steelmaking」, Dahl 교수는 「Failure analysis of steel structures with fracture mechanics methods and its correlation to materials properties」에 대해서 강연했다.

國產개발技術 45種추가 고시

科技處, 技術보호·자금지원

科學技術處는 9월 2일 「유압 메인펌프설계 제작기술」등 國產開發技術 45종을 추가 고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기술보호는 물론 각종 자금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했다.

지난 4월 94종의 개발기술을 보호키로 고시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고시된 기술은 국산신기술제품으로 보호조치된 23개기술, 정부와 민간이 특정연구사업으로

공동개발한 22개과제등 45종이다.

이들 기술이 상품화될 경우 연간 6억 6천만달러의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가 기대되는데 科技處는 이들 고시기술에 대해서는 특정 연구개발사업비 지원, 기술보호지원, 설비금융 및 산업기술향상지원자금,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제공등 각종 지원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事務局長들의 協助 당부”

鄭宗長, 科總사무국장회의에서



◇鄭助英 사무총장이 사무국장회의에서 人事를 하고 있다.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는 9월 26일 科總회의실에서 86년도 회원단체 事務局長會議를 개최했다.

韓國纖維工學會 方官錫 사무국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鄭助英 사무총장은 人事를 통해 『66년 9월 창립 당시 남의 사무실을 빌어서 생활하던 科總이 20년이 지난 현재 2천여평 규모의 자체건물에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5개부문 2백여 단체에 20만명 이상의 회원수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학회살림을 맡아오면서 科總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사무국장들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말했다.

鄭宗長은 이어 科總은 그동안 과학기술 주요정책 전의를 비롯 학회 학술활동지원, 각종 학술대회개최, 새마을 기술지원, 산학협

진흥을 위해 진력해왔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科總이 우리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전의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사업 실적보고, 86년도 학회 학술활동지원 현황 및 회원단체 전의사항 추진 결과 등 회무보고에 이어 내년 7월 서울에서 열릴 제10차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와 과총 창립20주년 기념행사 개최에 따른 업무협의가 있었다.

그런데 科總은 창립20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科總 20년사」의 발간과 함께 「기념식 및 특별 강연회」를 10월 24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했다.

한편 회의가 끝난 뒤 이날 참석자들은 科總이 마련한 小宴에 참석, 담소를 나누었다.

'87종합학술대회 제반문제 협의

李재미과협부회장·河재구과연상임이사, 科總 禮訪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趙完圭회장은 10월 11일 일시 귀국

중인 在美한국과학기술자협회 李薰翊부회장(Dow Chemical 연구원)과 在歐한국과학기술자연합회 河泰圭 상임이사(스위스공대교수)의 禮訪을 받고 '87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했다.

鄭助英 사무총장도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87종합학술대회가 범세계적인 학술행사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在外 한국과학기술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우승에) 엔지니어클럽장년·에너지研 청년

科總주최, 과학기술인 테니스大會서

준우승은 이비인후과학회(장년) · 기계학회(청년)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창립 20주년기념 과학기술인테니스 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은 장년부에서 한국엔지니어클럽팀(추현출 · 김교성)과 청년부에서 한국에너지연구소팀(이영철 · 신태명)이 차지했다.

과학기술인의 체력단련과 회원 단체와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10월 8일 꽃동네테니스장에서 개최한 이번 테니스대회에서 준우승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팀(김진영 · 김선곤 : 장년부)과 대한기계학회팀(오홍국 · 이재현 : 청년부)이, 그리고 3위는 장년부에서 한국물리학회팀(라병욱 · 최병두)과 한국엔지니어클럽팀(한철수 · 김유도), 청년부에서는 대한산업공학회팀(김성식 · 김성인)과

한국중공업팀(최대준 · 이형직)이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대한건축학회 김정철씨와 과학기술처 김대석씨에게 매너상이 수여됐으며 감투상은 이창건씨(에너지 연구소), 미기상은 노재식씨(에너지연구소)에게, 노력상은 이현호씨(대한 건축학회)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는 50세 이상의 장년부 7개단체의 10개팀과 50세 미만의 청년부 32개 단체 48개팀 등 모두 34개 단체 58개팀이 참가했다.



◇장년부 우승팀 시상광경

「韓國의 經濟발전」기조연설 행해

馬景錫고문, 아시아클럽 원탁회의서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 호주 · 중국 · 필리핀 · 싱가폴 · 말레이지아 · 인도지나 · 태국 · 일본 등 9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서 馬고문은 패널토의에도 참가하여 「21세기는 太平洋時代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주역이 될 日本의 지역내 역할 즉 기술전수, 경제협력 및 무역개방 등에 대하여 日本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축구했다.



馬景錫
고문

馬景錫 科總고문(韓國엔지니어 클럽 명예회장)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日本 慶應市에서 열린 제13차 Asian Club 원탁 회의에서 「지난 20년간의 한국의

全國청소년 科學경진대회 開催

10월 26일 여의도서 4 개種目에 걸쳐

科學的인 재질이 우수한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소에 연마한 과학의 재능을 한껏 발휘하고 과학에 대한 꿈을 활짝 펴는 全國 청소년科學 경진대회가 10월 26일 서울 여의도중학교와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동시에 열린다.

韓國과학기술진흥재단 (이사장 尹日善)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청소년과학 경진대회는 모형항공기공작 경진대회를 비롯, 과학상자 조립경진, 모형자동차경진, 라디오조립 등 4 개 종목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종목별로 보면 올해 4 회째가 되는 「모형항공기 공작경진대회」는 글라이더 및 고무동력기 부문에서 168명의 초·중학생과 28명의 교사가 참가하며 3 회째가 되는 「모형자동차 경진대회」는 초·중학생 120명이 포장도로용 경진차부와 비포장도로용 경진차부에 참가한다.

또한 올해 2 회째가 되는 「라디오 조립대회」에는 초·중학생 60명이 출전하여 라디오 4 석과 6 석을 조립하게 되며 「과학상자 조립 경진대회」는 금년이 3 회째로 초·중학생 180명이 참가 과학적 기량을 겨루게 된다.

한편 이번 대회의 시상식은 27일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거행된다.

그런데 이 전국청소년 과학 경진대회는 모두 9 개 종목으로 나

뉘어 실시되는데 과학도서 독후감 발표 및 산수·수학 경시대회 등 5 개 종목은 각시도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아시아 遠隔探査 회의

10월 23~28일 KAIST서

제 7 차 ACRS (아시아 원격탐사회의)가 오는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6 일간 KAIST 존순강당에서 大韓遠隔探査學會 주최로 개최된다.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중국, 태국등 15개국에서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리모트 센싱 기술발전정책을 알리는 국가보고와 각 분야의 기술발전을 알리는 기술보고 등이 있게되어 이와함께 국내외 리모트센싱기술과 관련기기 전시회도 가질 예정이다.

RI 폐기물심포지움 開催

11월 8 일 KAIST 강당에서

韓國放射性 同位元素協會 (회장 朴益洙)는 한국에너지 연구소와 공동으로 放射性 同位元素 폐기물에 관한 심포지움을 11월 8 일 한국과학기술원 학사부 강당에서 개최한다.

原子力法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위원소 사용기판의 RI 폐기물 발생물에 대한 관리, 수거, 운반, 집하, 관리, 처리 및 처분 등의 기술과 제도를 토의, 협의함으로

써 RI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어에 철저를 기하고 RI개발 및 이용증진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산업분야 RI폐기물의 현황과 문제점(박시열/과기처 원자력상임 위원) △의료분야 RI 폐기물의 현황과 문제점(이민재/고려대 부속 혜화병원) △RI 폐기물관리와 기술(박현희/에너지연) △일본에서의 RI 폐기물관리(아기라 기구찌·도묘요시 나까지마/ 일본 방사성동위원소협회)등이 발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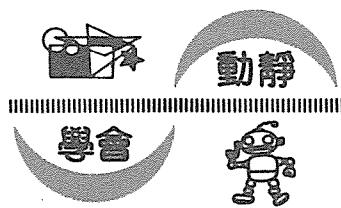
遺傳工學者초청 강연회

10월 16~17일 연구발표회도

노벨상 수상자인 Walter Gilbert 교수(美·하버드大) 초청 강연회 및 유전공학연구발표회가 10월 16~17 양일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다.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주관, 한국미생물학회와 강원대등 6 개대학 부설 유전공학연구소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초청 강연회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美國 하버드大의 W. Gilbert 외에도 T. Honjo 교수(日·Kyoto大), K. B. Jacobson 박사(美·국립 Oak Ridge 연구소), Y. Sakaki 교수(日·Kyushu大), K. L. Agarwal 교수(美·Chicago大) 등이 초청된다.

한편 유전공학연구발표회에서는 지난해 문교부 지원에 의해 실시된 「인체 암유전자에 관한 연구」 등 43편의 유전공학연구결과가 발표되며 「장내 유독대장균의 비방사성 검출법에 관한 연구」 등 10편의 한국미생물학회 유전공학 관련 연구결과 발표가 있게 된다.



韓国化學工学会

韓國化學工學會(회장 朴元圭)는 오는 10월 25~26일 양일간 영남대 인문관에서 86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와 학회상 시상이 있게되며 학술행사에서는 초청강연을 비롯 특별강연, 연구논문발표회, 산학협동심포지움 등이 있게 된다.

이번 학술행사는 李台燮과기처장관의 「2 천년대를 향한 과학기술정책」 등 3 편의 초청강연과 화학연구소 궁리환박사의 「계면활성체의 어제와 오늘」 등 6 편의 특별강연이 실시되며 「촉매·반응공학」「에너지환경」「분리기술」「전달현상」「생물화공」「공정시스템」「열역학」「공업화학」「유동총공학」「분체공학」「고분자」 분야에서 모두 16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서기 2 천년과 한국의 화학공업」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산학협동심포지움에서는 「대형 장치산업의 예상되는 변화」와 「해외로부터의 도전과 첨단산업」 등 두개의 Session별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세계化學工學회의 참가도

한편 동학회는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日本 東京에서 열린 제3차 세계화학공학회에 朴元圭회장을 단장으로 한 31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1 천여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된 이 학술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모두 47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특히 서울대 李載聖교수는 「The Horizon of Korean Chemical Industry」란 초청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화학공업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했다.

大韓齒科醫師協會

大韓齒科醫師協會(회장 申旻澈)는 내년 4월에 개최될 제3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수여할 협회대상인 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작업에 들어갔다.

학술상수상대상은 치과 병·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치과의로서 개설기간중에 임상치료학부문에 관한 연구실적이 현저한 자와 교육기관 및 각 종합병원 기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상 또는 기초 치의학 부문에 관한 연구실적이 현저한 자이다.

그리고 신인학술상 수상자격은 86년도 석·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만 35세 미만의 치과의사이어야 하는데 단 교수에 의해 단독 연수·지도받은 자에 한한다.

학술상 추천서류는 추천이유서 1통과 피추천자의 업적 및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5부, 이력서

1통, 사진 3매이며 신인학술상 추천서류는 추천이유서 1통, 이력서 1통, 논문 5부, 사진 3매 이다.

韓國情報科學会

韓國情報科學會(회장 金吉昌)는 오는 10월 24~25 양일간 이화여대 종합과학관에서 금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앞으로 2년간 학회를 대표할 새 임원진을 선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확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의 Lawrence J. Henschen 박사(North Western대 교수)와 일본 IBM 자연언어프로젝트 책임자인 D. Tsumi 박사의 초청강연이 있을 예정이며 최근 해외에서 PHD를 획득하고 귀국한 南吉鉉박사(국방대학원) 등 3명의 박사의 특별강연이 있게 된다.

한편 25일 실시될 학술논문발표회에서는 최신 정보과학 논문이 발표되고 이와 함께 기술보고 및 사례발표가 있게 된다.

韓國自動車工学会

韓國自動車工學會(회장 金熙喆)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 까지 개최되는 「자동차기술 엔지니어를 위한 전산기용용설계기술 강습회」의 참가희망자를 모집한다.

수강인원은 30명.

大韓金屬學會

大韓金屬學會(회장 姜日求)는 10월 25일 한국과학기술원 동부지역에서 86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금년도 3/4분기까지의 사업실적과 추가개정예산(안) 및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8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한편 금년도 학회상을 시상하게 된다.

한편 추계학술강연 및 발표대회에서는 日本金屬學會 大谷正康 회장(東北大 명예교수)의 「溶銑에 비처리에 있어서의 각종 Flux 반응 특성」등 8편의 학술강연 및 3편의 기념강연과 「증착된 티타늄 박막의 접합조직 및 미소조직에 관한 고찰」등 161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韓・日金屬심포지움도

동학회는 이에 앞서 24일에는 창립40주년기념 韓・日 金屬심포

지움을 KAIST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일본측에서 東北大 금속재료연구소 井上明久 박사등 5명의 전문가와 한국측에서는 기계연구소 朴元旭박사등 7명의 전문가가 모두 12편의 최신연구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韓國技術士會

技術士補修教育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 韓國技術士會(회장 金慶植)는 금년에는 8월 26~27일 이틀간 기술사회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10월 7~8일에는 2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제16회(79년)부터 19회(81년) 사이에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536명과 1회(64년)부터 15회(78년) 까지의 기술사가운데 지난해 교육미필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건축시공, 토공시공, 건설기계, 지

역 및 도시계획, 측지, 조경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위생관리, 가스기술사는 제외됐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기술사자격갱신시 1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데서 비롯된 이 보수교육을 국가기술자격(기술자) 취득자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고취하는 한편 과학기술향상 및 국가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大韓藥師會

大韓藥師會(회장 金明燮)는 회원들이 한약을 연구하는데 지침서가 되도록 「韓藥學」을 출간했다.

大藥 한약연구소위원회가 펴낸 「韓藥學」은 한약의 역사적 고찰, 문헌소개, 약물의 각론, 배합금기 및 탕제를 비롯한 액기스제·파립제 등의 처방, 한약의 품질평가, 약리활성 등을 이해하기 쉽게 엮었다.

科總회원단체 10월중 學術行事 계획일정

〈86. 9. 25. 현재〉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행사일	장소
대한금속학회	강일구	철강기술 및 신소재에 대한 제2회 국제회의	10. 7~8	포철제련연수원 국제회의실
공기조화냉동공학회	최상홍	태양열강연회	10. 8	과학기술회관
한국기술사회	김경식	기술사보수교육	10. 7~8	전축사협회회관
대한마취과학회	최세진	추계학술대회	10. 10~11	63빌딩
대한법의학회	김만달	"	10. 10~11	고려대학교
대한안과학회	홍승민	"	10. 10~11	앰배서더호텔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행사일	장소
대한산부인과학회	노경병	추계학술대회	10. 10~12	신라호텔
한국정밀공학회	김재관	정밀공학부문별(계측제어·자동화생산시스템) 학술강연회	10. 11	한국기계공업진흥회관
한국생약학회	김병각	영지버섯의 화학과 약효에 관한 심포지움	10. 11	대한약사회관
한국항공우주학회	조옥찬	86년도 항공학술세미나	10. 11	인하대학교
한국어업기술학회	박중희	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10. 11~12	부산수산대학
대한전자공학회	박규태	UNIX(v68) 단기강좌	10. 13~16	한국기계공업진흥회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선철	제60차 학술대회	10. 11	63빌딩
대한생리학회	강두희	추계학술대회	10. 11	한림대학
대한전기학회	백용현	전기기기연구회	10. 11	부산대학교
한국의류학회	조승식	추계학술발표회	10. 11	무역회관
한국미생물학회	강현삼	UNESCO 아시아·태평양지역 진핵생물 유전자조작에 관한 WORKSHOP	10. 14~23	서울대학교
한국공업표준협회	최종완	국제품질관리분임조 교류	10. 14~19	쉐라톤워커힐호텔
한국고분자학회	김점식	추계학술발표회	10. 16~18	한국과학기술원
대한정형외과학회	이덕용	추계학술대회	10. 17~18	힐튼호텔
대한용접학회	엄동석	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10. 17~18	부산유스호스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김광일	총회 및 학술발표회	10. 17~18	한양대학교
대한병리학회	손태중	추계학술발표회	10. 17~18	경북대학교
대한임상병리학회	이삼열	추계학술발표회	10. 17~18	제주 하얏트호텔
한국식품과학회	하덕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10. 17~19	서울여자대학
대한전자공학회	박규태	제3회 제어학술회의	10. 17~18	한국과학기술대학
한국농업과학협회	현재선	총회 및 학술발표회	10. 17~18	농촌진흥청
대한소아과학회	고광욱	추계학술발표회	10. 17~18	롯데호텔
대한피부과학회	허원	추계학술대회	10. 17~18	광주신양파크호텔
대한전기학회	백용현	'86한국자동제어학술회의	10. 17~18	한국과학기술대학
한국박용기과학회	전효중	추계학술강연회	10. 18	해기사협회 회관
대한방사선의학회	김기정	추계학술대회	10. 18~19	한국과학기술원
대한한의사협회	안영기	제10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	10. 18	인천시민회관
한국임상수의학회	최희인	추계학술심포지움	10. 18	무역회관
한국토양비료학회	조성진	추계학술발표회	10. 18	농촌진흥청맥류연구소
한국잡초학회	김동수	"	10. 18~19	농촌진흥청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이명호	총회 및 학술발표회	10. 18	경희대학교
한국잡사학회	권영하	추계학술연구발표회	10. 18	국립생사검사소
한국표준연구소	강홍열	Workshop on National Standards System and Precision Measurement	10. 20~21. 1	한국표준연구소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행사일	장소
대한금속학회	강일구	제1회 한·일재료공학 공동 심포지움	10. 22-24	한국과학기술원
대한전자공학회	박규태	한·일 합동국제학술회의	10. 23-24	한양대학교
한국오염학회	한기성	총회 및 학술발표회	10. 24-25	경남대학교
한국섬유공학회	김진우	추계세미나	10. 24	단국대학교
대한수학회	조태근	총회 및 학술발표회	10. 24-25	연세대학교
대한내과학회	정환국	추계학술발표회	10. 24-25	쉐라톤워커힐호텔
한국기상학회	이승만	추계학술발표회	10. 24-25	서울대학교
한국물리학회	김정흠	총회 및 연구발표회	10. 24-25	강원대학교
대한가정학회	이춘계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10. 24-25	서울여자대학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윤형	추계학술대회	10. 24-25	앰배서더호텔
대한약학회	한덕용	총회 및 학술발표회	10. 24-25	성균관대학교
한국정보과학회	김길창	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10. 24-2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박정기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심포지움	10. 24	언론회관 국제회의실
대한기계학회	민수홍	생산공학 및 산업기계부문 학술강연회	10. 25	한국기계공업진흥회관
한국산업미생물학회	배무	추계학술대회	10. 25	이화여자대학교
대한생화학회	강윤세	추계학술발표회	10. 25	경상대학교
대한광산학회	전용원	추계학술발표회	10. 25-26	전북대학교
대한건축학회	이광노	추계학술발표회	10. 25	영남대학교
대한수의학회	조충호	총회 및 학술발표회	10. 25	서울대학교
한국화학공학회	박원규	총회 및 학술발표회	10. 25-26	영남대학교
대한금속학회	강일구	추계학술발표회	10. 25-26	한국과학기술원
대한전자공학회	박규태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단기강좌	10. 20-22	한국기계공업진흥회관
한국원자력학회	이병희	총회 및 학술발표회	10. 25	63빌딩
대한토목학회	최영박	추계학술발표회	10. 25	전북대학교
대한교통학회	이일병	추계학술발표회	10. 25	도로교통안전협회강당
한국고무학회	김준수	추계학술발표회	10. 24-25	부산 화학분석시험검사소
대한화학회	전민제	제58회 연회 및 추계총회	10. 25-26	부산산업대학
대한전자공학회	박규태	M. R. C 반도체 세미나	10. 29-31	63빌딩
대한핵의학회	박창윤	추계학술발표회	10. 30	전남대학교
대한기생충학회	임경일	추계학술발표회	10. 31	한양대학교
대한미생물학회	장우현	추계학술대회	10. 31-11. 1	서울대학교
대한환경공학회	정재기	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	10. 31-11. 1	충북대학교
한국해양학회	박주석	총회 및 학술발표회	10. 31-11. 1	해양연구소
한국농업교육학회	이상래	총회 및 학술발표회	10. 30-11. 1	서울대학교
대한공업교육학회	이재원	추계학술발표회	10. 말	충남대학교

1 메가 디램급 반도체

256K S 램 개발에 성공

三星半導体, 美·日이어 世界 3 번째로 개발

三星半導体通信(사장: 姜晋求)은 지난 9월 7일 순수한 국내 자체기술로 최첨단 반도체인 256K S 램 개발에 성공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 반도체기술이 디램부분 뿐만 아니라 S 램분야에서도 선진국수준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256K S 램은 1 메가 디램과 같은 수준의 반도체로서, 이는 삼성반도체통신이 '83년 국내 최초로 64K 디램 개발, '84년 10월 256K 디램의 개발, '85년 4월 64K S 램 개발생산에 이어 불과 3년만에 이룩한 쾌거로써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그동안 삼성은 256K S 램 개발을 위해 국내 기홍연구소의 최규현박사를 중심으로 공정개발에는 이정환·강호규, 제품설계에는 과학원 출신의 정봉영·변현근연구원 외에 디바이스 개발팀, 테스트 개발팀 등 40여명의 개발팀을 '85년 3월에 발족하여 꾸준한 연구개발끝에 불과 1년 반만에 개발을 올리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256K S 램의 개발성공은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공정기술까지 완전히 국내 연구소 기술진에 의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완전자립기술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삼성반도체 통신이 그동안 메모리 제품개발에 경험의 있

는 설계기술자와 양산기술자들로 팀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개발할 수 있었다.

256K S 램은 64K S 램보다 4배가 높은 접적도를 가진 첨단제품으로서 손톱만한 크기의 칩속에 150여 만개의 트랜지스터와 저항을 접적시킨 반도체로서 보통 신문지 2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약 3만 2천자를 기억시킬 수 있어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전자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삼성반도체통신이 개발한 256K S 램은 정밀도를 나타내는

회로선폭의 디자인률이 1.2미크론급으로 기존의 1 메가 디램의 디자인률과 같은 수준으로 속도는 100 나노초와 120나노초 2종류가 있다.

삼성반도체통신이 개발한 256K S 램은 그 성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하며 저소비 전력의 C-MOS 제품으로서 기존 퍼스컴을 휴대용으로 더욱 컴팩트하게 만들수 있으며, 워드프로세서 팩시밀리등 OA 시대를 맞아 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256K S 램의 세계 시장은 '87년부터 도입기에 들어가 '87년 4억 9천만불, '88년 11억 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개당 가격은 현재 19불선으로 삼성반도체통신은 256K S 램을 적기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어 향후 5년간 4 억 5천만불 이상 수출할 계획이다.

마그네트론 새공장 준공식 가져

三星電子, 연간 2 백만개 생산능력

三星電子(대표 韓亭洙)는 9월 16일 水原공장에서 전자레인지의 핵심부품인 마그네트론의 국산화를 위한 중설공사를 마치고 새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三星은 지난 83년에 연간 1백만대의 마그네트론공장을 준공, 자체생산해 왔으나 그뒤 마그네트론의 수요가 2배나 늘어나게 됨에 따라 지난해 日本 미쓰시타와 기술제휴를 맺고 1백억원을 투입, 지난 2월에 중설공사에 들어간지 7개월만에 새공장을 완

공했다.

三星은 새공장 건설로 마그네트론 생산능력을 연간 1백만개에서 2백만개로 높이고 수입대체효과도 연간 2천 4백만달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마그네트론은 1초당 24억 5천만번씩 회전하여 바뀌어 주파를 발생시키는 전자레인지의 핵심부품으로 日本이 세계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고 일본·미국·한국만이 자체 생산하고 있다.

自動門 制御裝置 國產化에 成功

金星計電, 보다 低廉한 價格으로 普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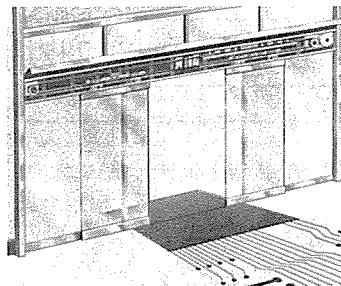
金星計電(代表:崔根善)이 自動門의 핵심부분인 制御장치의 國產化를 이루하고 生產에 들어갔다.

9월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金星計電은 지금까지 완전히 수입에 의존해 오던 自動門 제어장치를 지금까지의 시퀀스제어(Sequence Control)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성공, 약 40%에 달하는 절감된 가격으로 이달부터 自動門 시공업체에 공급키로 했다고 한다.

自動門은 전동기, 공·유압 실린더(Cylinder) 및 제어장치를 사용하여 門의 개폐를 자유롭게 만든 것으로 보기좋은 모양과, 좁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 수동문에 비해 커다란 에너지절약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市內의 소규모 점포에 까지도 需要가 확대될 것으로豫想된다.

金星計電이 공급하게 되는 自動門 제어장치는 마이크로 스위치 및 시리즈 모터를 채용한 電動式으로 속도제어능력 및 驅動力이 뛰어나며 어린이, 노약자들이 사용할 때에도 안전하다고 한다.

현재 國내에 설치되어 있는 自動門 제어장치는 油壓式과 콘텐서 採用 電動式 및 시리즈모터 採用 電動式 등이 있는데, 기름을 이용하는 油壓式은 온도의 변화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여

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사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콘텐서 採用 電動式 역시 온도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 전동기의 번잡한 驅動이 있을 경우 電動機 주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편, 시리즈모터 採用 電動式 제어장치는 이러한 短点들을 없애長期的으로, 항상 驅動이 가능한 반면에 그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었다.



21세기 科學文庫 ⑩

科學의 反思想

- 科學思想의 새로운 探求 -

朴 益 淚 著

科學의 思想 혹은 哲學을 잘 이해하려면 物理學의 기본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모든 과학의 기반이 물리학이기 때문에 물리학의 사상 즉 철학이 과학의 사상 즉 철학이 되는 것이다. 과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수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물리학에 있어서의 자연인식의 변천이라든지 과학의 방법론적 및 철학적 고찰을 통해 여러 다른분야의 독자들에게는 물리학의 많은 중요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의 제1장 「自然認識의 역사적 변천」과 제2장 「現代科學

의 철학적 고찰」은 과거에 필자가 《과학의 철학》이란 表題로 출간했던 것을 대폭 改造하였고 이 것에 表題인 “科學의 反思想”을 새로이 제3장으로 보충하여 내용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평소 과학의 사상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생각해온 필자는 「科學思想의 새로운 探求」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 과학자체에 내포된 현대 과학의 사상적 특징을 또 다른 측면에서 사상일반의 일반적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反思想」이라는 단어에 의하여 새로운 사상의 한 鑄型을 설명하고 있다.

〈科學世記社刊· 4×6판· 204쪽· 값 2,800원〉